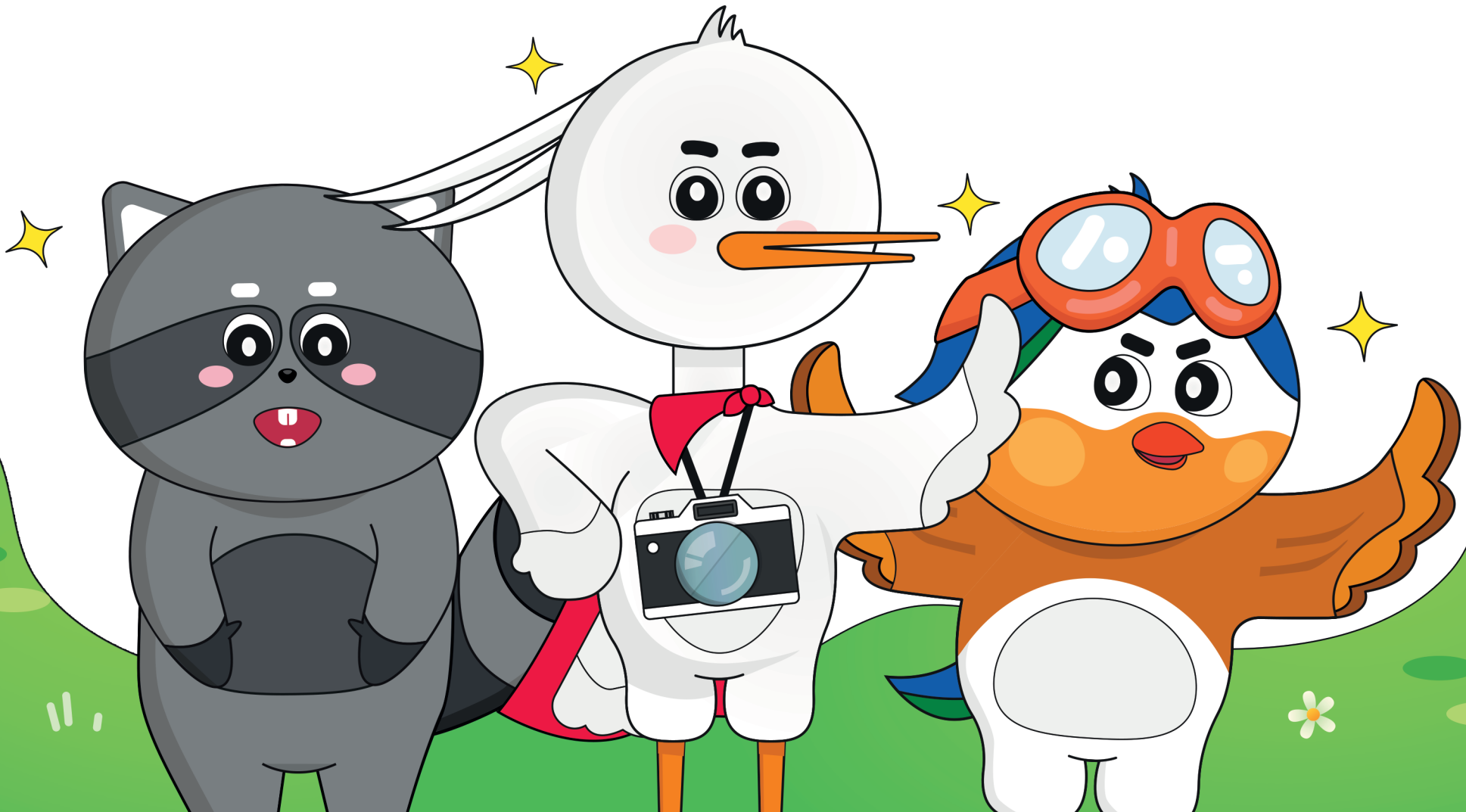


우이천 탐험대

우이천의 친구들을 지켜라



우이천 탐험대

우이천의 친구들을 지켜라



아주 오래전부터 도봉산에는 산천을 돌보는 산신 할머니가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산신 할머니에게는 요즘 걱정이 하나 있습니다.
지구가 뜨거워지고 환경이 오염되면서 사라지는 동·식물들이 많아졌기 때문이에요.
“기후 위기로 생명이 사라져가니 이걸 어찌할꼬...”



우구리야, 오이청이
아니라 우이천이야.

너희가 우이천을
좀 살피고 와야겠구나.

오이청 말씀이세요?

걱정스러운 얼굴로 한참을 고민하던 산신 할머니는 백로 우이니와 작은 너구리인 우구리를 불러 얘기했어요.

“너희가 우이천을 좀 살피고 와야겠구나.”

“오이청 말씀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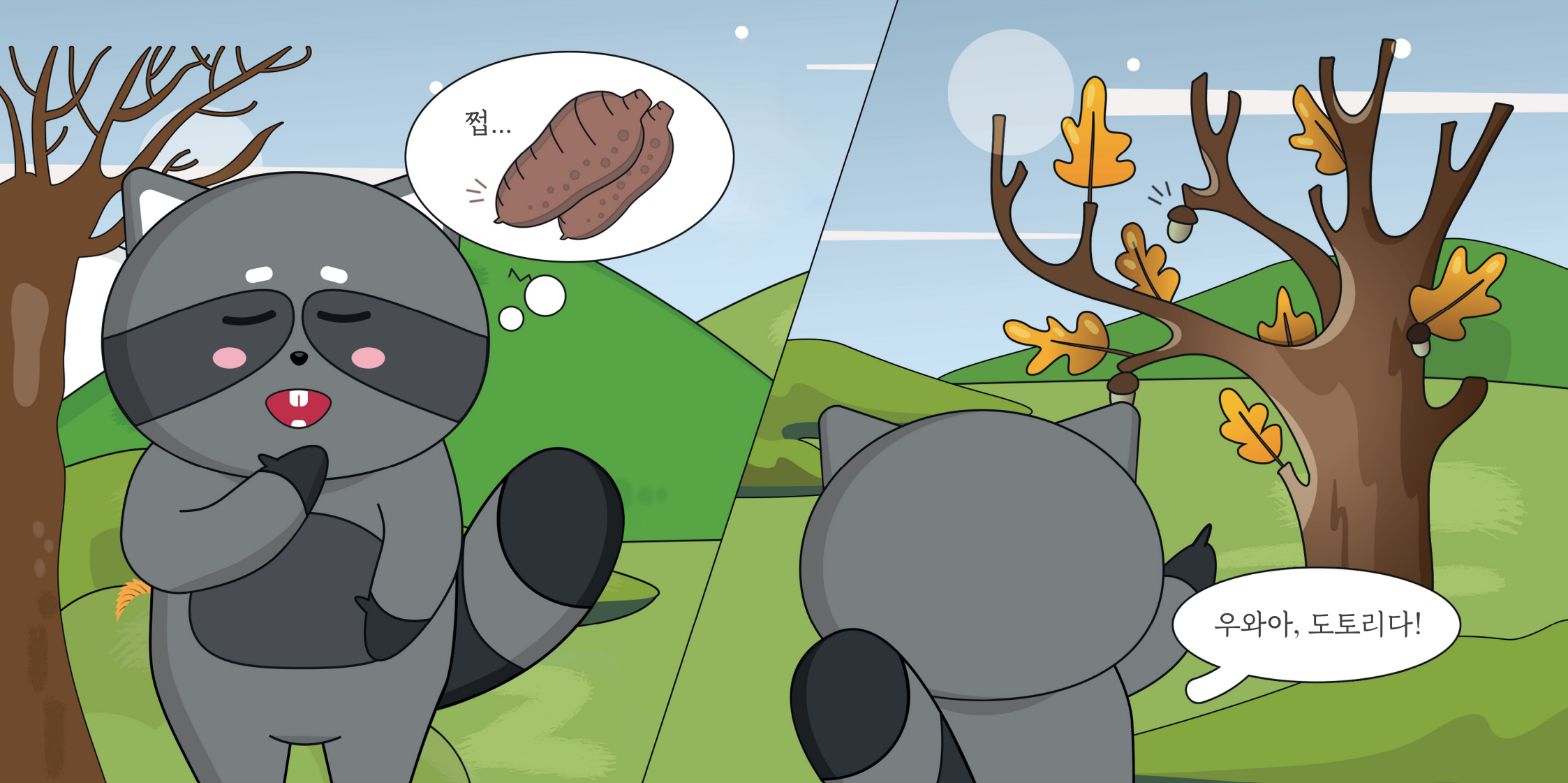
우구리가 엉뚱한 대답을 했어요. 그러자 우이니가 제대로 알려주었지요.

“우구리야, 오이청이 아니라 우이천이야.”



산신 할머니가 “흐흠!” 하고 헛기침을 하시고는 이어서 말했어요.

“기후 위기로 우이천에 살아가는 생명들도 위협받고 있단다. 몇 년 전 보였던 녀석이 안 보이기도 하고 말이야... 일단 누가 살고 있는지 알아야겠구나. 너희가 우이천에 사는 친구들의 사진을 찍어와주렴. 그동안 나는 도봉산을 살펴봐야 하니 일을 잘 마치면 선물을 주마.”



선물이라는 말에 우구리는 고구마를 상상하며 입맛을 찹찹 다녔어요.

그때 참나무 아래 웅기종기 모여있는 도토리를 발견했지요.

“우와아, 도토리다!”

우구리는 신나서 도토리를 주우러 달려갔어요.



그 사이 우이니는 빨간 망토를 어깨에 두르며 친구들을 지키겠다는 각오를 다졌어요.
그리고 나서 곧바로 우구리와 함께 우이천으로 내려갔답니다.



그런데 막상 우이천에 도착하니 막막함이 밀려왔어요.

“이 넓은 우이천에서 언제 친구들 사진을 다 찍지?”

우이니는 한숨을 쉬었어요. 우이니의 속도 모른 채 우구리는 그새 강아지풀과 장난을 치고 있었죠.



“그게 무슨 말이야?”

갑자기 들린 낯선 소리에 뒤를 돌아봤더니 원앙 한 마리가 있었어요.

“넌 누구니?”

우이니가 물었어요.

“나는 우이천에서 태어난 원앙 우철이야. 너야말로 누군데 사진을 찍겠다는 거지?”



우이니는 할머니의 말을 그대로 전해주었어요. 그 말을 들은 우철이는 우쭐대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나처럼 우이천을 잘 아는 텃새에겐 그리 어렵지 않은 일이지!”
“그렇다면 너도 같이 할래?”
하지만 우이니의 제안을 우철이는 단번에 거절했지요.
“안돼. 난 먹이를 찾느라 바쁘거든!”



그때 우구리가 우철이 앞을 막아서서는 뒤적뒤적 주머니를 살폈어요.

그리고는 두 손 가득 도토리를 꺼냈답니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도토리잖아?!”

우철이는 침을 꿀꺽 삼키며 말했어요. 동그래진 두 눈은 도토리만 쳐다보고 있었죠.



우리와 함께하면
산신 할머니께서 선물을
주실거야

우이니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다시 제안했어요.

“도토리를 주면 먹이를 찾지 않아도 되겠지? 게다가 우리와 함께하면 산신 할머니께서 선물을 주실 거야.”



“좋아. 까짓것! 같이 하자!”

우철이는 말을 끝내자마자 도토리를 낚아채 갔어요. 그러고는 도토리를 찹찹대며 말했지요.

“그런데 말이야. 내가 도와준다 해도 시간이 꽤 걸릴 텐데. 탐험대원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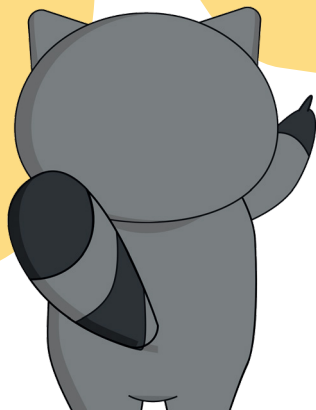


우이니는 잠시 고민하더니 당신을 쳐다봤어요.
네! 바로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 말이에요.
“친구야, 우리와 함께하자. 우이천 탐험대원이 되어 줄래?”
자, 그럼! 이제부터 우이천 탐험대가 될 준비가 되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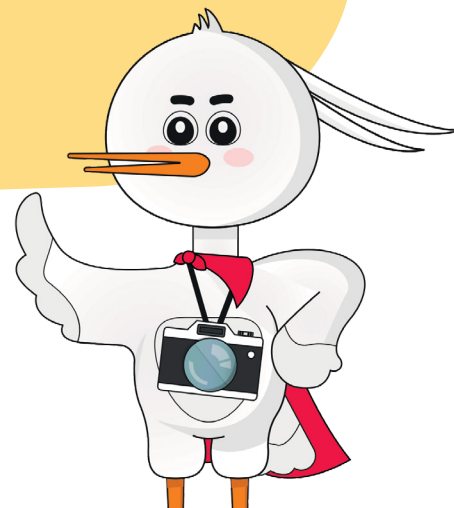
탐험 방법

- 1 이름을 아는 동식물 친구들을 찾고 사진을 찍어요!
- 2 동식물 친구들을 찾았는데 이름을 모른다면, 탐험대 준비물에 있는 동식물 카드 또는 책을 보고 친구들의 이름을 찾아봐요!
- 3 12장의 사진을 찍었다면 인터넷 탐험대 모임에 사진을 올려 우이니에게 보내주세요!
- 4 탐험이 끝난 뒤에도 동식물 친구들에게 반갑게 인사해주세요!



- 1 반드시 보호자와 함께 탐험해요!
- 2 비가 오면 그 날은 탐험을 쉬어요!
- 3 사진을 찍을 때 후레쉬를 사용하면 친구들이 놀라요!
- 4 동물 친구들에게 소리를 지르면 동물 친구들이 무서워해요!
- 5 식물 친구들을 꺾거나 발로 차면 식물 친구들이 아파요!
- 6 울타리를 넘어 우이천 안으로 들어가면 위험해요!
- 7 어두운 밤에 탐험을 하면 친구들을 찾기 힘들어요!

탐험 규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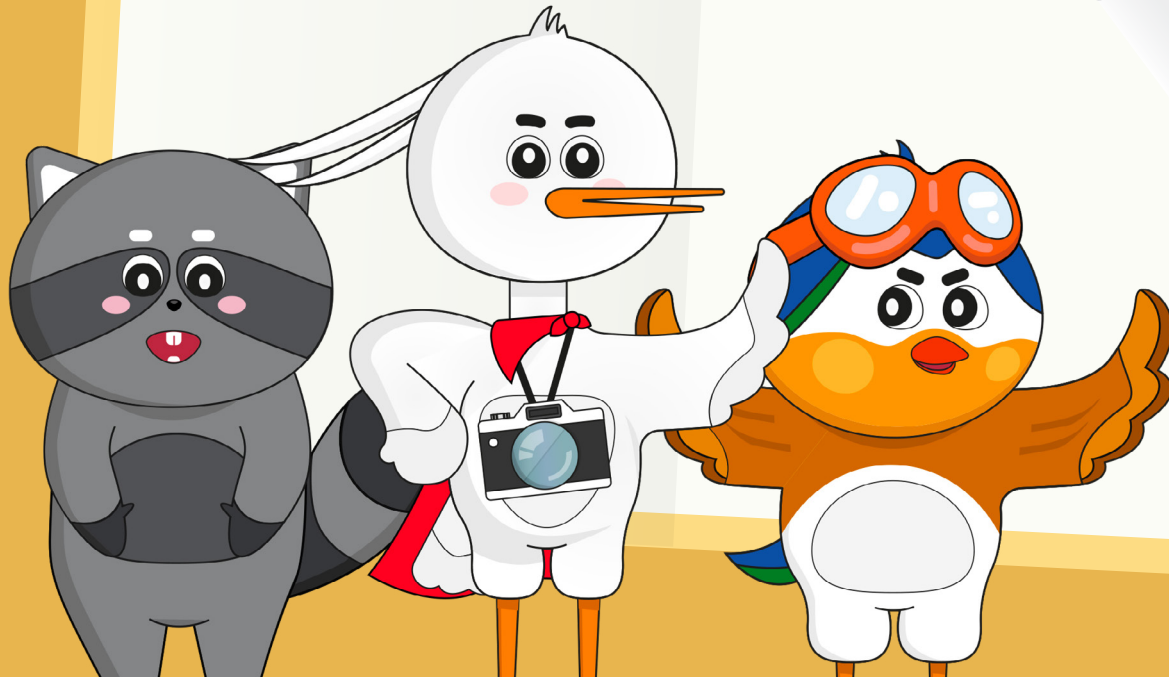
탐험지도

덕수교

쌍문414앞교

계성교

쌍문교



우이천에서 가을에 만나볼 수 있는 동식물

가죽나무



가죽나무는 가짜 죽나무라는 뜻이에요.
작은 이파리를 많이 가진 나무라
겨울눈이 크다고 합니다. 그리고
귀여운 하트모양이에요.
가죽나무의 잎에는 끝에 작은 알 같은
것이 달려있는데 이걸 비벼보면 신기한
냄새를 맡아볼 수 있답니다.
냄새를 한 번 맡아보세요!

닭의장풀



닭의장풀은 줄기가 가늘고
속이 비어 있어 닭의 창자와 닮은,
닭장 근처에서 잘 자라는 풀입니다.
어린잎과 줄기는 나물로 먹기도 하고,
약으로 쓰이기도 하지요. 닭의장풀의
열매에서는 오리모양을 찾을 수도
있답니다. 한 번 찾아보세요!

누리장나무



누리장나무의 가지엔 털이 많아요. 잎,
뿌리, 가지는 약으로도 쓰이고 열매는
색을 내는 데도 쓰여요.
참 버릴 곳이 없는 나무죠?
그리고 꽃은 8-9월에 피니까 그때 한 번
보러오세요. 아 참, 누리장 나무를 보면
잎을 꼭 비벼보세요! 이건 비밀인데,
라면 냄새가 난답니다.

매듭풀은 촘촘한 잎맥이 특징이고,
1년을 사는 식물이에요. 매듭풀의 잎을
가로로 잡고 힘을 주면 잎맥 모양대로
쫘 갈라져요. 늦은 여름에 분홍색
꽃이 피고, 줄기 밑에는 촘촘한 잔털이
있어요. 친구와 매듭풀의 잎을 한 쪽 씩
잡고 당겨서 더 큰 쪽을 가져간 친구가
이기는 게임도 할 수 있답니다.

매듭풀



줄사철은 사계절 내내 푸른
식물이에요. 우이천의 담벼락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어요. 줄기 곳곳에서
공기뿌리가 자라나 주변 물체에 붙어서
자라요. 우이천의 작은 곤충들의
보금자리가 되어주기도 한답니다.

줄사철



환삼덩굴은 길가나, 돌, 빈터 등에서
흔히 볼 수 있어요. 한삼덩굴이라고도
하지요. 환삼덩굴의 잎은 5-7갈래로
갈라져서 손바닥 모양을 하고 있어요.
갈래의 가장자리에는 규칙적인 톱니를
볼 수 있지요. 그리고 양면에는
거친 털이 난답니다.

환삼덩굴



비단 잉어는 우이천의 물 속에 사는 친구예요. 잉어의 입 가장자리에는 두 쌍의 수염이 있는데, 뒤의 수염이 더 길어요. 보통 잉어들은 사는 장소에 따라 색이 달라지는데, 행운의 상징인 황금 잉어도 몸 색이 자연스레 변한 거예요. 뭐든 잘 먹지만 사람들이 주는 음식을 잘 못 먹으면 탈이 날 수 있으니 우이천에는 여러분의 사랑만 보내주세요!

비단잉어



이 친구가 바로 우이니예요.
중대백로라는 여름 철새지요.
중대백로는 긴 부리와 다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등에는 멋진 장식깃이 있지요. 부리의 색은 검은색이지만 번식기가 끝나면 노란색으로 변해요. 그리고 멋진 장식깃도 사라진대요!

중대백로



흰뺨검둥오리는 이름처럼 아주 하얀 뺨을 가진 오리예요. 검은 부리의 끝이 아주 예쁜 노란색이고, 다리는 주황색이랍니다! 주로 논이나 저수지 근처의 풀이 있는 곳이나 야산의 덩굴 속에 땅을 파고 풀과 앞가슴의 털로 장식해서 살고 있습니다.

흰뺨검둥오리



가는실잠자리



가는실잠자리는 기온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나뭇가지에 머리를 붙이고
가슴과 배를 직각으로 하여 앉아
월동해요. 보호색 때문에 그 모습이
작은 나뭇가지처럼 보이기도 해요.
겨울에 눈이 오면 그대로 흰 눈이 몸에
수북이 쌓인 채로 월동하는 잠자리도
볼 수 있어요!

들풀거미



들풀거미는 주로 줄사철에 집을
짓고 사는 곤충이에요. 집모양은
마음대로해서 제각각인 집을 가지고
있지만, 집 중간에 잎을 모아 터널을
만들어두어요. 사람들이 거미줄을 치면
집을 먹고 숨거나, 먹이가 거미줄에
걸릴 때까지 터널에 숨어서 기다리기도
해요. 들풀거미가 놀라서 도망가는걸
보고 싶다면 줄사철나무 근처에서
들풀거미를 찾아보세요!

풀색노린재



풀색노린재는 풀처럼 밝은 녹색의
몸을 가졌답니다. 각종 열매나
채소부터 버나 콩도 잘 먹는 잡식성
곤충이며 높은 산에서도 발견됩니다.
풀색노린재는 놀래주면 고약한 방귀
냄새를 풍기며 도망가지만, 오래전부터
약으로도 쓰여 온 좋은 친구랍니다.

발행인 이동진
발행처 도봉문화재단
발행일 2021년 11월 15일

글 이세라
삽화 유화정
디자인 페이퍼컴퍼니

공동기획
덕성여자대학교 김수연, 김수현, 김해담, 윤수민, 이에슬
도봉문화재단 김용현, 사영미, 이임주

협력/자문 도봉환경교육센터
제작지원 서울문화재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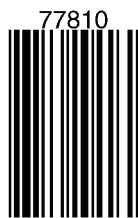


비매품/무료



9 791197 641602

ISBN 979-11-976416-0-2



77810